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12.15.(월) 12:00
(지면) 2025.12.16.(화) 조간

한-중 지방행정 세미나 6년 만에 재개

- 행정안전부-민정부, 12월 16일, 서울에서 '제14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' 개최
- '기부·자선'을 주제로 상호 정책경험 공유 및 공동 발전 방안 모색

□ 한-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민정부*가 개최하는 '한중 지방행정 세미나'가 6년 만에 재개된다.

* 민정부(民政部)는 중국 국무원 소속 장관급 부서로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2월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(플라밍고홀)에서 중국 민정부와 '제14회 한-중 지방행정 세미나'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□ 한-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'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MOU)'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해왔다.

※ 코로나19로 '20~'22년 영상회의 대체, '23년이후 중단되었다가 '25년 대면회의 재개

□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주재로 개최되며, 중국에서는 왕커창(王克强, Wang Keqiang) 정책법규사* 사장, 쟁바오루이(臧宝瑞, Zang Baorui) 자선사업촉진사** 부사장 등 민정부 대표단 6명이 참석한다.

* 민정사업 발전 관련 법률·법규, 정책, 계획 수립, 행정사무의 표준화 등 담당

** 자선사업 발전정책 수립·촉진, 사회 기부사업 지도, 복지복권관리 업무 담당

< 제14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개요 >

- (일시/장소) '25. 12. 15(월) ~ 12. 18.(목) / 서울·수원·제주
- (회의주재) 韓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, 中 민정부 정책법규사 사장
- (주요내용) 환영 리셉션*, 지방행정 합동 정책세미나**, 현장시찰*** 등

*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환영 간담회(12.16.), ** (의제) 기부·자선,

*** ①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·장기요양지원센터, ② 제주 김만덕 기념관(나눔문화),

③ 서귀포시청(제주가치돌봄), ④ 탐나는에코(노인일자리), ⑤ 화순곶자왓(고향사랑기부금사업)

- 이번 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‘기부·자선’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.
- 행정안전부는 ‘한국의 기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’을 공유하고 ‘고향사랑 기부제도’를 소개할 예정이다.
 - 민정부는 ‘중국의 자선사업 발전현황과 방향’, ‘자선재산의 감독관리와 보호’에 대해 발표한다.
 - 이어서, 양 기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-중 양국의 기부제도와 자선사업 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.
 -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중국 민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김민재 차관은 환영 간담회 자리에서 “‘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’* 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씀처럼 한-중 양국은 오랜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”라며,
- * 경주 APEC 계기 한-중 정상회담(11.1.) 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발언
- “올해로 14회를 맞는 한-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12월 한파에서도 구석구석 온기가 스밀 수 있도록 민생을 살뜰하게 살피는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양국 지방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조경미 (044-205-3128)

